

'수채화 같은 5월' 법음과 함께

봄꽃이 만발한 수채화 같은 산사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주로 가을에 많이 열렸던 산사음악회가 올해에는 봄축을 맞아 잇달아 열린다.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는 5월 5일 오후 2시부터 특설무대에서 인도 월드컵전 그룹 '쌍짓 프렌즈(Sangeet Friends)' 초청 명상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이 두 번째 방한한 쌍짓 프렌즈는 <2002 전주 소리축제>에 초청돼 영혼을 울리는 심연의 소리로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연은 '아우타에서 불어온 바람'과 '금강경' 등 고정 레퍼토리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직접 무대에서 연주하는 즉흥연주의 순서로 꾸며진다. 공연 15분전 입장객에 한해 무료다. (032)937-0125

경기 김포 용화사(주지 지관)도 5월 7일 저녁 7시 김포 여성회관에서 '제 1회 음악예술제'를 연다. 영남 사물놀이팀 시작으로 용화사 합창단이 '향심' '오늘은 좋은날' '생명의 빛' 등을 연주한다. 이어 피아노와 바이올린 독주, 용화사 실내악단의 합주 등이 펼쳐진다. 전등사 합

있는 입담은 산사음악회의 재미를 배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악가 정을스님과 흥국사 보현합창단도 이번 음성공양에 한 몫을 거둔다. 음악회 시작전 오전 11시부터는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전통사찰음식 공양 잔치를 벌인다. (02)381-7970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은 5월 16일 오후 1시 30분 '제 5회 참꽃축제'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기획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팝, 클래식, 가요, 국악, 무용, 찬불가 등 다양한 장르가 선보인다. 가수 한영애, 국악인 최자영, 비올리스트 김남중, 심진 스님 등이 주요 출연진이다. 이외에도 이명진 무용단도 창작 무용을 펼친다. (02)914-8860

대구 범왕사(주지 실상)도 5월 18일 오후 6시 큰법당앞 무대에서 산사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에는 성악가인 시명·동연·도일 스님과 박정식, 김경녀, 김난영씨 등 지역 가수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053)766-3747

안동 대원사(주지 정우)는 5월 18일 저녁 7시 안동시민회관에서, 영주·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봄꽃 내음 물씬 풍기는 산사(사진은 심곡암)에서 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창단도 우정 출연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등 찬불가도 선사한다. (031)984-3234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주지 대오)는 5월 9일 오후 1시부터 대웅전 앞 무대에서 '건강 산사음악회'를 마련한다. 음악회에 '웬 건강' 하며 고개를 가우뿔할지 모르지만 흥에 겨워 음악을 즐기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해진다게 주지 대오 스님의 생각이다. 출연진들도 설운도, 코리아나, 안치환, 김태곤 등 대중가수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김병조씨의 재치

화 조계종 사암연합회(회장 지현)는 5월 19일 저녁 7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잇달아 음악회를 갖는다. 18일에는 안동사 암연합합창단과 정을 스님, 테너 김민성, 최조용, 소프라노 강금령씨가 출연한다. 또 19일에는 영주 마하합창단과 영주 장애인종합복지관 소리확합창단이 '초파일 송가' '진리의 빛' '부처님께 바칩니다' 등을 부른다. 안동 대원사(054)858-2630, 영주사암연합회(054)672-1446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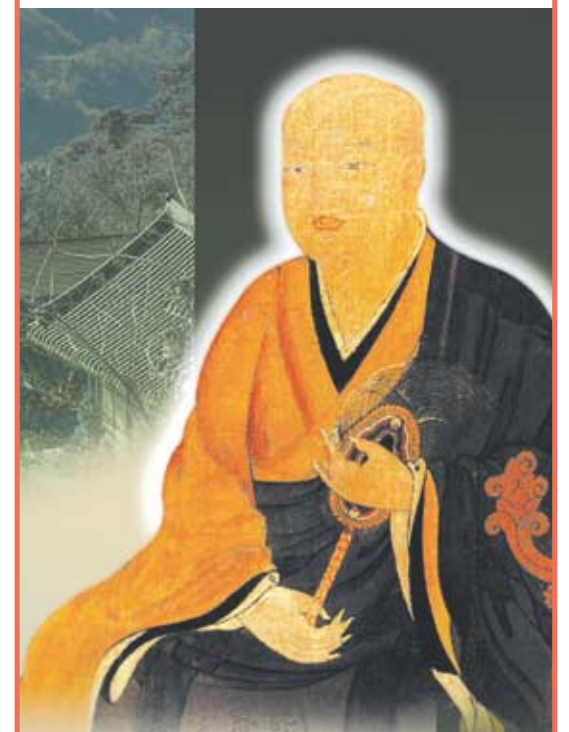


■ 봄축맛이 산사음악회

- 강화 전등사 '쌍짓 프렌즈' 초청(5월 5일)
- 김포 용화사 '제 1회 음악 예술제' (5월 7일)
- 고양 흥국사 '건강 산사음악회' (5월 9일)
- 서울 심곡암 '제 5회 참꽃축제' (5월 16일)
- 대구 범왕사 큰 법당서 음악회(5월 18일)
- 안동 대원사 시민회관서 음악회(5월 18일)

문화관광부 5월의 문화인물에

의상대사



문화관광부는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룬 화엄사상을 정립한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625~702)'를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했다.

의상대사는 삼국통일기인 7세기 중반기의 전환기를 살면서 신라 사회의 내적 발전에 부응하여 새로운 불교사상인 화엄사상을 체계화하였다. 또 관음신앙과 미타신앙을 널리 펴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에도 크게 공헌했다.

의상대사는 661년 중국에 건너가 지엄 선사에게서 새로운 불교사상인 화엄을 배우고 <일승법계도>를 지어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670년 귀국해 낙산에 관음 진신상주 도량을 열고 황복사에서

화엄사상 체계화, 불교 대중화 공헌

기림사업회·부석사 학술대회 등 행사

화엄을 가르쳤고, 676년에는 영주 부석사를 창건해 여러 제자들을 모아 화엄사상을 체계적으로 연마하고 청정 수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화엄종단을 이끌었다.

의상기림사업회와 부석사는 공동으로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우선 5월 23일~24일 오후 5시 영주시민회관에서는 '극단 영주'가 창작연극 '의상'을 공연한다. 5월 28일 오후 1시30분에는 동양대에서 '의상사상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5월 29일 저녁 7시 영주 부석사 범종부에서 '중도 하나를 위한 상생축제'를 주제로 화엄음악회를 기획한다. 5월 29일~30일에는 부석사에서 차례제를, 5월 30일 오전 11시 부석사 무량수전에서는 '의상 화엄일승 기념법회'와 '화엄불교 공연 예술제'를 연다.

의상기림사업회 (054)633-3464 김주일 기자

佛紀 2548年 부처님 오신 날

봄축광고 접수 안내

현대불교신문 창간 열 번째를 맞는 부처님 오신 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특집신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준비된 지면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사찰, 종단, 단체, 업체, 개인 등
- 광고내용 : 사찰(단체)명, 소속 단체, 주소, 연락처, 관련사진, 기타 관련 내용 등.
- 접수방법 : 전화 및 팩스, 우편, 이메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2-1522 / 팩스 02)737-0697
E-mail : rjk1414@hotmail.com
- 접수마감 : 2004년 5월 17일
※ 전국 지사 접수 가능합니다. (지사안내 참조)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시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경남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경북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전남일원	이준엽	062)375-9986 / 011-9644-3536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